

광역 통합의회 첫발... 지방자치 새 역사 썼다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 공식 출범...송형곤 의장 선출 '반도체 지원 조례' 1호 안건 처리...통합시 성장 뒷받침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가 1일 첫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의회 시대를 열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남과 행정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하나의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비로소 입법과 행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지방정부 체제를 갖추게 됐다.

통합특별협의회는 이날 오전 0시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초대 의장 선출과 출범 필수 자치법규 처리 등 본격적인 원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의회가 자정에 첫 회의를 연 것은 통합특별시와 통합교육청이 같은 시각 공식 출범에 따라 행정 공백을 막고 조직 운영의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는 김성일 임시의장의 사회로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친 뒤 초대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초대 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형곤(고흥1) 의원이 선출됐다.

송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정부가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는 국가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취임 직후 의회 제1호 안건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재석 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회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첫 의결이라는 평가다.

이어 통합특별시 조례 233건, 통합교육청 조례 63건,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조례 34건 등 모두 330건의 출범 필수 자치법규를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회를 통한 조례안은 곧바로 집행부로 이송돼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보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에도 완안대로 처리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윤민호(진보당·북구2) 의원은 "교섭단체 제도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법규 제정이 마무리된 뒤에는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대중



1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 첫 본회의에서 송형곤(더불어민주당·고흥1) 의원이 초대 의장에 선출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각각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통합특별협의회는 이날 오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이어가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1부의장에는 조석호(북구3·3선), 2부의장에는 김문수(신안1·3선) 의원이 선출됐다.

초대 운영위원장은 신민호(순천6·3선) 의원, 선임 기획재정위원은 임형석

(광양·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소방위원장 박성재(해남·3선), 미래산업위원장 이귀순(광산·재선), 농수산위원장 류기춘(화순·재선),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 박원중(영광·재선), 일자리경제위원장 진호진(곡성·재선)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또 안전건설위 강정일(광양·3선), 도로교통위 강수훈(서구·재선), 문화관광체육위 홍기철(동구·재선), 보건복지위 안평환(북구·재선), 교육위 최정훈(목포·재

선)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으로 뽑혔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나뉜 두 트랙 운영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명의 위원장을 차례로 선출할 예정이다.

본회의의 산회 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를 하고,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선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협의회는 광주시의회

와 전남도의회가 통합해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통합의회다. 통합특별시의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의결,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이어 첫 통합의회까지 출범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삼성·SK 800조 투자...전남광주 '세계 반도체 메카' 도약

통합특별시 출범식·반도체 투자환영 시민대회

고용유발 2만명·부가가치 540조·생산유발 1680조원 기대 전남광주 반도체전략위원회 전격 출범...원스톱 기업 지원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뭉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의 도약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산업 지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오후 7시 통합특별시 시민권정부의 상징적 공간인 5·18민주광장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식 및 반도체 투자환영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통합의 힘! 반도체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시민대회는 각

계각층의 시민 1000여명이 민주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산업 투자를 기점으로 지역 주도의 압도적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 '전남·광주 반도체 트라이앵글', '반도체 순환 생태계' 등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남부권으로 확장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반도체 순환 생태계는 4기의 메카 패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거점, 대학·전문·인재를 중심으로 한 연구·교육 인재 양성, 기업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2만명의 고용 유발, 부가가치 540조원 창출, 168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통합특별시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시민권정부의 압도적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지평을 비탈 위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이 여정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투자의 체계적 실행을 도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전략위원회 출범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800조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맞춘 특별시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 조치다.

반도체전략위원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정은승 전남광주대통합 기획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기업 고문, 지역 경제 리더 등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기업 밀착 지원 및 유치, 소부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등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AI) 미래 반도체밸리 완성을 위한 핵심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진도군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 탄력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국비 70억 확보 생산·가공·수출 집적...2030년까지 1011억 투입

진도군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면서 글로벌 김 수출거점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한 1011억원이 투입돼 김 중장기 개발부터 생산·가공·수출까지 집적한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서 진도군의 '글로벌 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각종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500억원 이



상의 투자 또는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사전 컨설팅과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진도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진도 글로벌 김 클러스터는 근내농공단지 27만9112㎡ 부지에 김 중장기 개발

을 위한 민간투자 82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0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기업에는 견제율과 용적률 완화,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모두 7개 지구를 확보하게 됐다. 앞서 △2016년 진도 해양복합관광지구와 광주 송정역 KTX 지역경제거점형 △2017년 함평 축산특화산업지구 △2018년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2022년 지오국제문화관광단지 △2023년 영광 e-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선정됐으며, 이번 진도 글로벌 김 클러스터까지 포함해 확보한 국비는 모두 524억원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민형배 "부시장 2명 시민추천 선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 운영 방향으로 시민 참여형 인사와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4명의 부시장 인선에 대해 "(지방직) 두분은 시민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고, 곧 공모 절차 들어갈 것이다. 이 중 한분은 여성이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핵심 과제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시장은 이날 오전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직 중 1명은 여성 임명...8월 1일자 조직개편 목표 기능별 3청사 운영...9일 타운홀미팅서 시민의견 수렴

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인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당선인 신분에서는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청사" 개념은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안에는 의회와 시민주권 관련 기능, 광주에는 정부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능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오는 9일 열리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권 설 등 3년 내인 2029년까지 성과가 내는 것이 목표"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보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다. 정부도 속도를 내고자 하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면 엄청난 속도다. 미국에서는 2년 만에 공장을 완공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며 "침 하나를 들이고 흔들든, HBM을 들고 흔들든 임기 내에 성과가 나와야 한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송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1면 '통합특별시출범'서 계속

민 시장은 1호 업무 지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총력 지원 방안을 뒤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의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개최한 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전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 선서를 통해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의 미래산업에 취업하는 교육 지산지소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특별시교육은 더 이상 수도권에 뒤따라가는 교육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의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시·구·군의 단체장도 이날 민생·안전·AI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민선 9기 시정운영에 들어갔다.